



▶ 협회장 동정

○ (주)카길애그리퓨리나 김기용 회장 정년퇴임식 참석

지난 10월 27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주)카길애그리퓨리나 김기용 회장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여 업계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눴다.

○ 제7, 8차 이사회 개최

지난 9월 28일과 10월 26일 제7, 8차 이사회를 각각 열고 최근 급등하고 있는 국제 사료원료 수급 및 가격 동향 분석 등 업계 현안들을 논의했다.

○ '사료공장 HACCP전문과정 교육' 기념 축사



지난 10월 13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KOBACO연수원에서 사료공장 HACCP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2010년 사료공장 HACCP전문과정 교육'에 참석하여 기념축사를 했다.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예방

지난 9월 24일 조남조 회장을 비롯한 본회 회장단 일행은 유정복 신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예방하고 사료업계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2010년도 사료품질 및 위생·안전성 교육' 기념 축사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본회가 주관한 '2010년도 사료품질 및 위생·안전성 교육'에 참석하여 기념 축사를 했다.

조 회장은 개회 첫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들어 국제 사료원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우리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고 말한 뒤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품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제9회 한우인의 날 참석



지난 9월 14일 전북 익산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9회 한우인의 날' 및 '전국한우협회 창립 1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이날 참석한 주요 인사들과 업계 현안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 협회동정

◎ 추계 체력단련 등반대회



본회는 지난 10월 23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유명산에서 추계 등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등산, 산림욕, 족구 등을 통해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전 임직원 대화의 시간 가져



본회는 지난 10월 4일 아침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4/4분기 직원 조회를 갖고 임직원간의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남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들어 국제 사료원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걱정”이라며,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말했다.

○ 자매결연 마을 '절개(節介) 둘레길' 개통식 축하

본회는 지난 9월 29일 자매결연마을인 강원도 평창군 응암리(매화마을 : 이장 지준태)의 '절개(節介) 둘레길' 개통식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둘레길을 돌아보고 완공을 축하했다.

이날 둘레길 행사장에는 이석래 평창군수, 본회 직원, 전홍진 농협군지부장과 각급 기관, 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가졌다.



절개산 둘레길 안내문 제막식 모습.



마을 초입의 절개산 둘레길 안내문



지준태 이장에게 본회 조남조 회장을 대신하여 김치영 이사(오른쪽)가 금일봉을 전달하고 있다.



등산객이 아양정길 표지판 앞에서 환한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번에 개통한 '절개 둘레길'은 관광객들의 산책로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주민들과 성필립보 생태마을이 공동으로 절개산 주변으로 둘레길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7월부터 마을의 옛길을 복원해 조성한 것으로 평창강을 끼고 소나무 숲이 울창해 산림욕과 평창강의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4.5km코스다.

매화마을 진입로에서 시작하여 소나무숲길을 지나 오솔길과 강변길, 여울목길과 아양정 길을 따라가면 조선 선조 때의 지대명(知大明)이 창건한 정자각 아양정 등 볼거리도 풍부해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본회 조남조 회장은 김치영 이사를 통해 지준태 이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

▶ 업계동정

○ (주)하림

‘2010 윤리경영 대상 시상식’서 종합대상 수상

하림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윤리 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선정됐다.

(주)하림은 지난 10월 14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진행된 ‘2010 대한민국 윤리경영 대상 시상식’에서 윤리경영 대상 종합 대상을 수상했다.

하림은 지난 2008년 윤리경영 도입을 선포한 후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전파하는 한편, 실천할 수 있도록 임직원을 독려했다. 이문용 하림총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모두 윤리경영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하림은 윤리경영 수행노력 및 환경개선부문, 인재경영 실현, 사회적 책임경영의 수행 부문 등 전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문용 총괄사장은 “하림은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앞으로도 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10 대한민국 윤리경영 大賞



▲ 이문용 총괄사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시상식에 함께한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 이상길씨



▲ 박현출 실장



▲ 이상길 실장

정부는 지난 10월 8일자로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기획조정실장(사진 왼쪽)으로, 이상길 산림청차장을 식품산업정책실장(사진 오른쪽)으로 각각 발령했다.

또 11일자로 주이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약품평가과장을 질병방역부장으로 승진시켰다.

신임 박현출 기획조정실장은 1956년 무안에서 태어나 목포고등학교와 단국대 법학과, 단국

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1982년 농림부에 첫발을 내디딘 후 무역진흥과장, 협동조합과장, 유통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관을 거쳐 농업정보통계관, 축산국장, 농정국장, 식품산업본부장을 지내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 신임 이상길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958년 경북 청도 출신으로 경동고,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일리노이주립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4회에 합격, 82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축산국 축산정책과장, 농업정보통계관, 식량정책국장, 축산국장 등을 역임,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주)도드람B&F

정읍공장 무재해 2940일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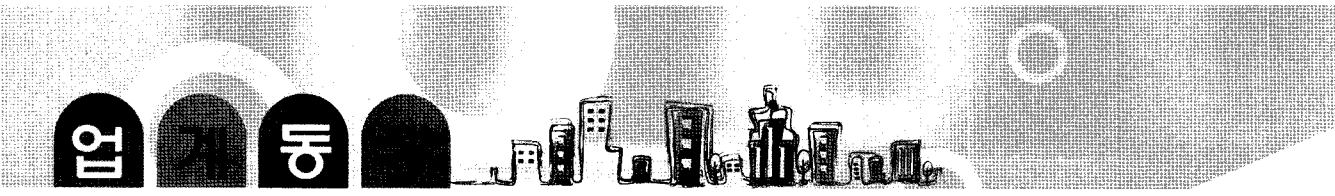
(주)도드람B&F가 지난 2009년 사료공장 HACCP 무결함 인증을 받은 이후 지난 7월에는 무재해 7배수를 달성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무재해 기간은 2002년 4월 30일부터 2010년 7월 23일까지로 총 2940일을 달성해 정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도드람B&F 관계자는 “전북지역 사료



▲ 도드람B&F 정읍공장 임직원들이 무재해 7배 달성을 자축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장 중에는 무재해 2배수 이상을 달성한 공장이 한 곳도 없으며, 전국 사료공장을 통틀어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성과"라며 "한해 산업재해 피해규모가 수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7년 연속 무사고 달성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수많은 신호가 있다"며 "조그만 위험요인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안전 시스템 구축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무재해 7배수 달성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드람 B&F의 안전 관리 시스템은 생산공정은 물론 상하차 및 물류에 이르기까지 사료업체의 성공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도드람B&F는 고객성공이란 기치 하에 무재해 15배수 달성과 2회 연속 무결함 HACCP 인증을 위한 2차 캠페인에 돌입했다.

도드람B&F 관계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일터에서 만들어지는 도드람B&F의 제품이라면 더욱 믿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료판매 보다는 시스템(복체인솔루션)을 판매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양돈전문회사 도드람B&F는 우리 양돈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미국대두협회

사무실 이전

미국대두협회는 지난 9월 17일부로 한국주재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이전했다.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92(포스코센터빌딩 서관 11층)
(우편번호 : 135-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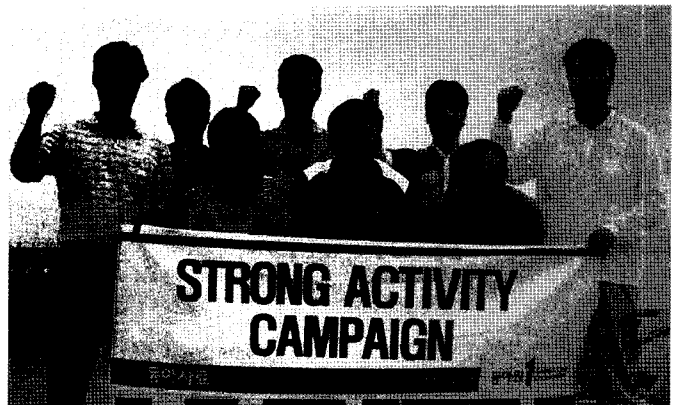
△ 대표전화 : (02)559-0755

△ 팩 스 : (02)559-0700

● 동아원(주)

동아사료 양계 캠페인 실시

동아원(주)은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불안 심리를 극복하고자 동아사료 양계영업부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양계영업부 유경택 이사는 “현재 사료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농가들이 저가사료에 현혹되기 쉽지만 동아사료는 최고의 생산성적을 내는 차별화된 제품력을 무기로 시장에서 경쟁하여 농가와 ‘윈-윈 전략’을 지속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밝혔다.

유 이사는 또 “금년 상반기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하반기 실적은 영업부장들의 팀웍이 성패를 결정하므로 일심동체의 결의를 다지고자 한배에 승선하는 프로그램으로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고, 이번 캠페인 기간에 고객과 더욱 밀착하여 양계사료 판매량을 확대하여 2010년 사업물량을 달성하자”고 밝힌바 있다.

○ (주)우성사료

양돈 우수농장의 날 행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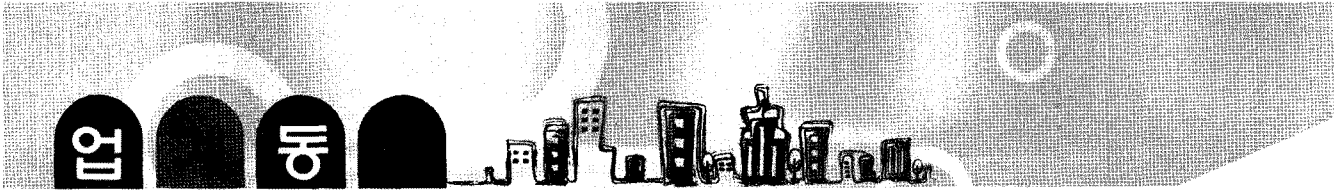
▲ 행사를 마치고 우수농장 대표들과 우성사료 직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주)우성사료는 지난 10월 13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 웨딩홀에서 전주와 김제지역의 양돈경영인과 함께하는 우수농장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EL농장(대표 김정기), 두리농장(대표 김선기), 한국종돈(대표 박형근)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EL농장(대표 김정기)의 경우 "우성 피그팜 솔루션"을 적용한 결과 모돈의 면역력 조기회복과 여름철 수태율이 크게 향상됐다. 지난해 우성사료로 교체하며 제일 먼저 실시한 모돈 등 지방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신돈 사료 급여량 증량과 모돈 크리닝을 실시한 결과 2010년 9월말 기준 분만율 86.1%, 수정율 90%, 이유두수 10두로 성적이 개선됐다.

올 여름은 그 어느 때 보다 무더위와 장마가 오래 지속되어 비육돈의 출하체중 감소와 사료섭취량이 많이 떨어져 양돈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종돈과 두리



농장의 경우 8월 출하체중을 110kg대로 유지하면서도 출하두수를 늘렸다.

한국종돈의 경우 지난해 대비 2010년 9월 기준 평균출하두수 417두에서 503두로, 평균출하체중 106.8kg에서 113.4kg으로 각각 출하두수 85두 평균체중 6.6kg를 증가시켰다.

두리농장 역시 2010년 월평균출하두수 212두, 평균출하체중 114.9kg를 기록, 이중혹서기인 8월 출하두수는 265두에 111.8kg의 성적을 올렸다.

두 농장의 공통점은 무더운 여름철을 대비해 한 박자 빠르게 농장내 차광막과 스프링 쿨러 설치, 습식 급이기 교체를 통해 혹서기 대책을 세웠고, 우성사료의 사료제조 특허공법인 CPT로 가공된 이노텍 비육돈 사료의 영향이 큰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우성사료 문성혁 양돈부장은 "모든의 수태율 향상방안과 비육돈 출하체중 향상을 위해서는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농장성적의 기본인 종부와 임신돈, 분만사 관리에 집중하고 농장의 수익과 직결되는 비육돈 출하체중 향상을 위해서는 여름철 무더위에 대처할 수 있는 농장의 시설보완과 농장 사장님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부사료(주)(주)트루라이프

천고마비의 계절, 닭의 비만 잡기 나서

- 닭의 비만은 트루라이프 FC가 잡는다! -



▲ 트루라이프 이정우FC가 닭의 비만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모습.



▲ 닭의 체중 체크 장면.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축산전문가들이 꼽는 양계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대표 골칫거리는 바로 닭의 비만(지방계)이다.

대한민국 축산업의 수익파트너 (주)트루라이프는 이러한 닭의 비만을 미연에 방지하고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농가와 관련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고 지난 10월 13일 전했다.

이는 가을철에 특히 늘어나는 사료섭취량이 닭의 영양소 요구량에 비해 불필요한 과도섭취 및 사료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비만 닭은 품질 및 산란율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활동이다. 과도한 섭취량 증가는 지방계와 스트레스 유발과 동시에 심할 경우 면역기능까지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질병으로 이어져 농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트루라이프 이정우 FC(Farm Consultant)는 가을철 닭의 비만을 잡기 위해서는 “계군별 닭의 섭취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균형 있는 영양소를 공급해야 하며, 환경적 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기록관리가 필수 선행되어야 한다”고 농장에 당부했다.

아울러 “닭에 대한 관심과 과학적 분석을 통한 사양관리, 영양관리, 방역관리, 질병관리가 한데 어우러진 통합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트루라이프 컨설팅은 규격화된 사료공급 및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회사와는 달리 국내 유일 닭을 정밀 타깃팅 한 농장별 맞춤컨설팅뿐만 아니라 계군별 맞춤 최적사료를 접목하는 등 과학적인 축산컨설팅을 선보여 양계산업을 선도하는 회사로 정평이 나 있다. 14명의 전문컨설턴트가 제공하는 트루라이프 컨설팅 문의는 유선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농장컨설팅 상담문의 : (032) 527-6913~4/www.etrulife.co.kr.

○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양계캠페인 전개

- 기본을 넘어, 고객 속으로 -

(주)카길애그리퓨리나는 지난 9월 28일 분당 본사에서 ‘기본을 넘어, 고객 속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양계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새롭게 선보이는 산란계, 오리 신제품과 서비스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10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양계사업본부장 김진형 전무는 회의 시작에서 “작년 양계캠페인을 통해 고객을 이해하며 기본을 다졌다. 올해는 새롭게 조직된 양계팀이 신제품을 가지고 고객 속으로 들어가서 더욱 더 차별화된 가치를 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하이웰 오리프로그램 / 울트라초이프로그램 신제품 출시

양계 마케팅 서상훈 박사는 “현재 오리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맞추어 육종개량 및 새로운 사양환경”을 고려하여 퓨리나 하이웰 오리프로그램을 출시하게 되었다. 이번 하이웰 오리프로그램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오리고기 소비가 증대함에 따라, 오리 체내 영양소 이용율을 감안하여 아미노산과 에너지의 최적화 설계로 조기에 출하하면서 육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많은 기술력이 담겨져 있다. 또 “초기 유전력을 극대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울트라초이프로그램을 통하여 산란계 성적을 좌우하는 육성계 체중관리 서비스를 강화, 고객의 생산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활동을 집중하자” 고 밝혔다.


퓨리나 양계 전 조직은 캠페인 기간 동안 현장 고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고객 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을 다짐했다. 



사진1) 양계캠페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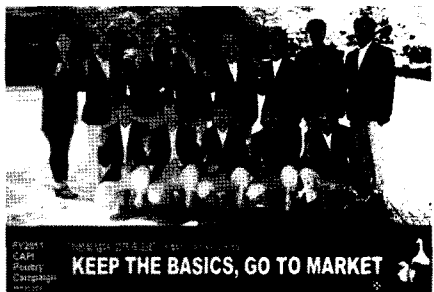


사진2) 고객 속으로 다가갈 양계팀



사진3,4) 신제품 사진